

Color Theme II _ **ALGORISM**

주변의 것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새로운 결과물들을 만들어어나가는 태도



자각(self-realization) 창조자(makers) 하는 것(doing)

개개인의 살아있는 경험(experience)

Power of Individuals

change the world by individuals



2016년 Spring과 Summer 시즌에는 각종 위험으로부터 우리 스스로를 지키고 스스로 문제점들을 자각하고 해결해 내는 능력이 요구된다. 넘치는 데이터들 속에서 개인의 역할과 살아있는 경험이 아주 중요하게 여기어지는 시즌이 될 것이며, 자신을 믿고, 신뢰를 기본 가치로 여기는 시즌이 될 것이다.

2016년 Spring과 Summer 시즌에는 개인의 힘이 세상을 변화 시킬 수 있다는 의미에서 **‘파워 오브 인디비주얼(Power of Individuals)’** 이라는 큰 주제를 가지고 시즌의 이야기를 풀어간다.

ALGORISM

Finding Creative Solutions

더 이상 새로운 것이 없는 시대에 주변의 것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새로운 결과물들을 만들어나가는 태도가 중요하다. 세상의 수 많은 창조자들이 각자의 환경 속에서 이전과는 다른 방식으로 접근하거나 또는 어울리지 않을 것 같은 대상들을 엮어서 갖가지 실험적인 시도들을 펼치며 예상치 못한 결과물을 만들어내기도 한다. 개개인이 창조자가 되어 다양한 실험을 통해 논리와 규칙을 찾아내려는 시도들로, 최소한의 재료를 활용하여 스스로 고안한 독창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움직임들, 완전히 새로운 것을 창조하기보다는 이미 존재하는 것들을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며, 나로부터 주변으로(from me to we) 전파되는 메이커스 움직임(maker's movement)을 이야기한다. 개개인은 각자가 실험가가 되어 각자 논리와 추론을 이용해서 규칙을 찾아내고, 창의적인 해결책들을 찾아낸다.



Colors from Laboratory 랩(Lab)에서 온 컬러들

알고리즘(Algorithm)의 컬러는 랩실(lab)에서 온 컬러들로 구성된다. 세균배양에 쓰이는 접시에서 영감을 얻은 다양한 그린(green)과, 주변의 소재(material)를 표현하는 컬러들, 그리고 랩실을 표현하는 화이트(white)가 함께 제안된다. 핑크(pink)가 포인트로 제안되며 예상 밖의 가능성을 표현한다.



∞ E. Coli Bacteria by Scientists at the U.K.'s Imperial College London



∞ Glass Lab by Diana Simpson



∞ Oil Bath For The Senses by Susanne Kaufmann

20 Fungi

15 Plastic

14 Lily Green

15 Plastic

∞ Alberto Zambelli AW/14-15 Lookboo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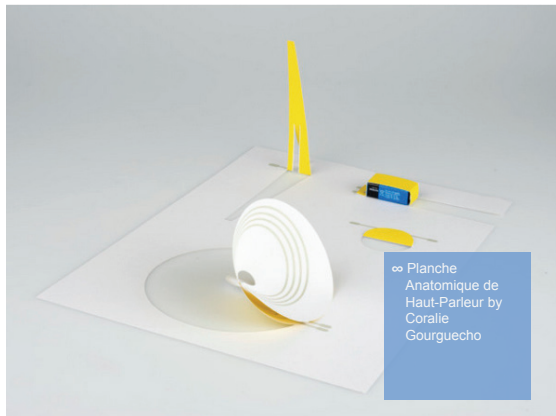
∞ Algaemy by Blond and Bieber



∞ Eyecicle by 001 Skincare

fab lab
제작실험실

상품을 제조하는 과정 자체가 실험적이고 도전적이며, 상당히 하이테크적인 모습을 보이지만 작품이 표현되는 방식이나 완성품은 가공되지 않은 것처럼 거칠고 자연적인 모습을 띠게 된다. **세균 배양이나 화학 접시와 실린더, 해조류(algae)를 활용한 실험에서 온 컬러들, 인공적인 플라스틱 컬러와 랩(lab)실을 상징하는 화이트(white)를 기본으로 올리브(olive), 그린(green) 톤이 액센트로 활용된다. 특히 올리브와 블루(blue)의 조화가 신선한 느낌을 전달하며, 실험 도구들에서 영감을 받은 투명소재, 인공광택 역시 중요하게 활용된다.** 허니콤(honeycomb) 구조의 패턴은 투명한 소재의 패널링(panelling)과 오픈워크(openwork)의 실험적인 소재들로 표현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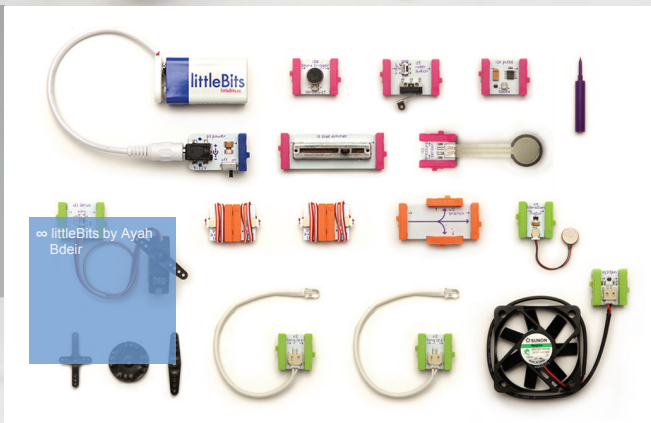
∞ Planche Anatomique de Haut-Parleur by Coralle Gourguech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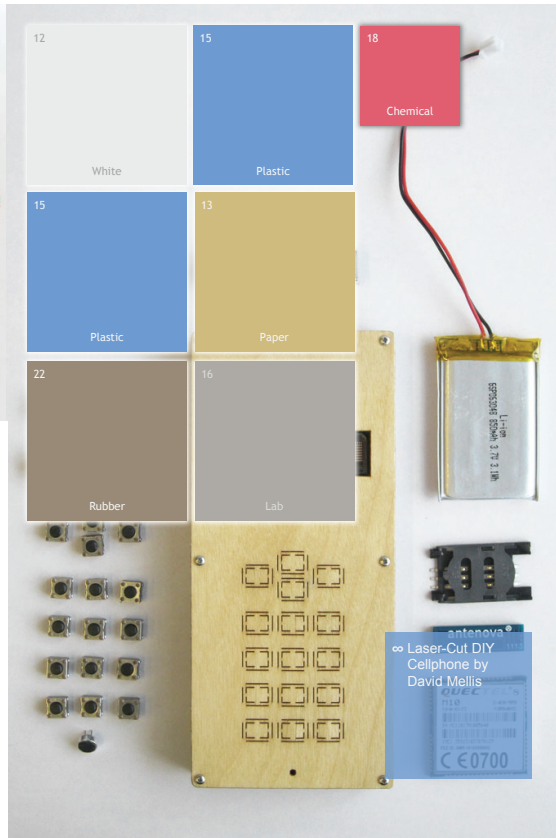
∞ Hexagonal Zoom Air by Nike



∞ Flying Pet Quadcopter by John Kuczala



∞ littleBits by Ayah Bdeir



∞ Laser-Cut DIY Cellphone by David Mellis

creative hackers

창의적인 해커들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사람만이 기계를 다룰 수 있다는 편견을 과감히 뒤집고, **평범한 사람도 기계를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이지(easy) 테크닉의 구현**을 이야기한다. 제품의 구성요소를 오픈 형식으로 표현한 종이 전기회로 디자인, 쉽게 제작이 가능한 무인정찰기 등이 사례로 제안된다. 테크놀로지에 부는 DIY의 열풍으로 전자 키트계의 레고라 불리는 리틀 비츠는 간단한 전자 회로를 구성할 수 있다. **화이트(white)와 테크놀로지를 상징하는 플라스틱 블루(plastic blue), 실버(silver) 컬러들이 주변의 소재를 나타내는 페이퍼(paper), 러버(rubber) 등의 컬러들이 조합된다. 하이테크의 초경량 소재와 플라스틱 소재 역시 중요하게 활용된다.**



∞ Dolomith by Andrea Forti and Eleonora Dal Farra

16 Lab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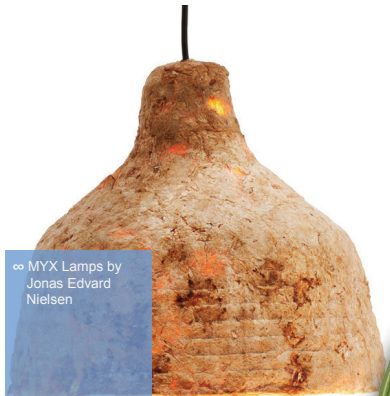
13 Paper

20 Fungi

13 Paper

13 Absinthe Green

∞ Skin by Sammy Jobbins Wells



∞ MYX Lamps by Jonas Edvard Nielsen



∞ Cultures by Lia Giraud

∞ Conceives Porcelain Casting Technique Based on Chicken Eggs by Kaja Woelky



∞ Skin by Sammy Jobbins Well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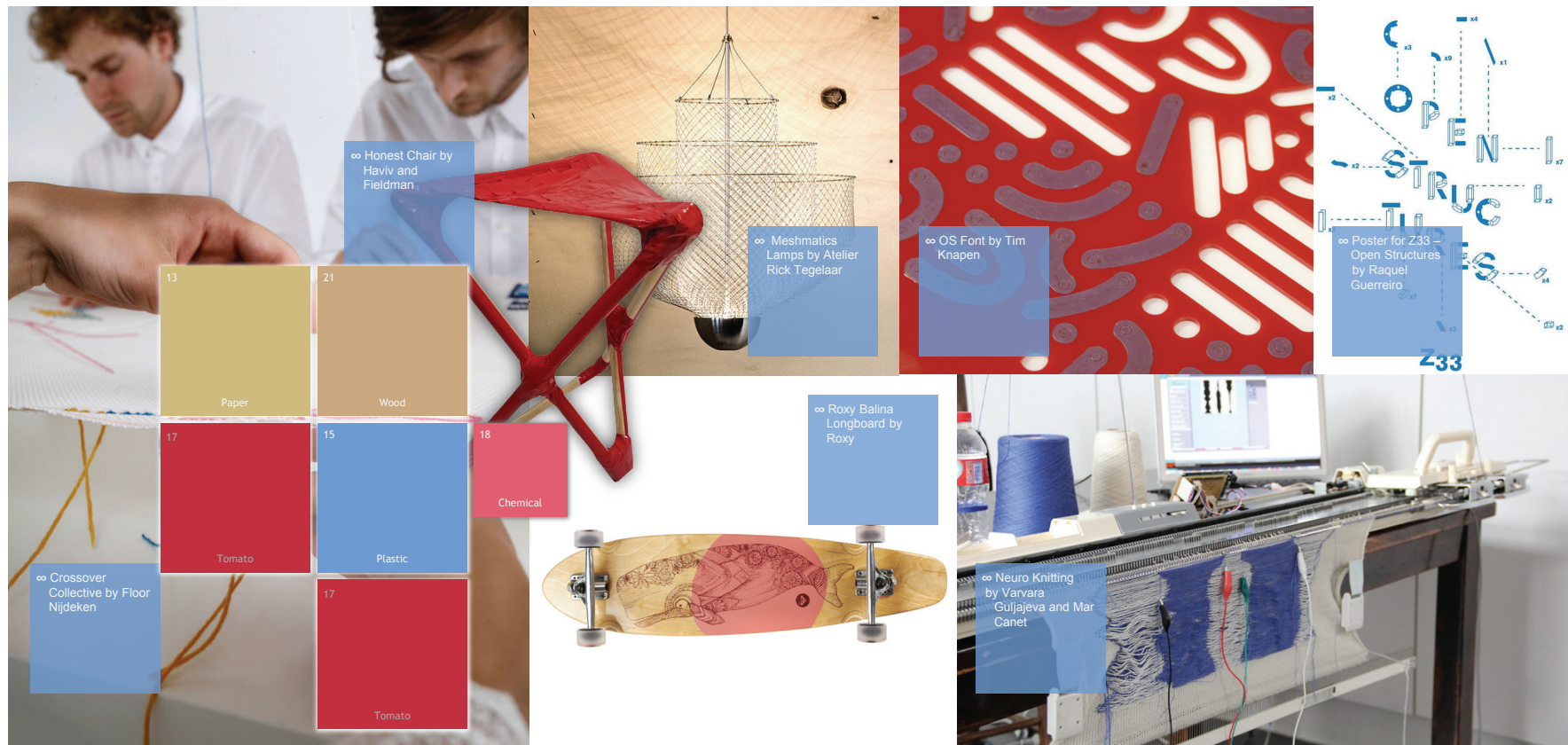


∞ Conceives Porcelain Casting Technique Based on Chicken Eggs by Kaja Woelky

nature law lab

자연의 법칙을 활용한 랩실

‘가장 자연스럽게 견고한 원리는 자연에서부터 비롯된다.’라는 진리에 의거하여 **자연을 닮은 혹은 자연의 법칙을 활용한 다양한 실험들**에 대해 이야기한다. 달걀 내부의 다공성 구조 이론이라던가, 달걀막이 스스로 칼슘을 첨가하는 원리를 기반으로해서 틀을 만들고 얇은 시트를 수없이 복제함에 의해 탄생한 도자기, 박테리아를 사용해서 만든 코르셋, 식용 가능한 버섯의 균사체를 이용해서 제작된 램프 등이 예시로 제안된다. 이 사례들은 하이테크적이지만 완성품들은 **가공되지 않은 것처럼 컬러 역시 러프(rough)하고 내추럴(natural)한 것**이 특징이다.



maker's workshop

메이커스 워크샵

오픈 소스(open source)를 활용하여 자원과 스킬(skill)을 웨어링(sharing)하는 메이커스 무브먼트는 사용자, 제조자, 디자이너, 소비자 간의 수직적인 관계를 허무는 3차 산업혁명을 이끄는 원동력이 된다. 여러 세대가 모여서 지식과 행동, 기술, 가치 등을 교류하는 크로스오버 컬렉티브(crossover collective)나, 워크샵에서 활용되는 다이어그램들(diagram), 툴(tool) 등이 DIY 워크샵 정신의 영감의 소스로 제안된다. 컬러는 레드(red)와 핑크(pink)가 주축이 되어 블루(blue) 혹은 화이트(white)가 함께 제안되며, 더불어 페이퍼(paper)와 우드(wood)의 톤온톤(tone-on-tone)을 활용할 것을 제안한다.

2016 S/S Color Proposal

(재)한국컬러앤드패션트렌드센터(CFT)에서는
한국디자인진흥원과 함께 산업통상자원부의 지원을 받아
디자인 산업에서 컬러 트렌드 동향을 조사 분석하여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모든 정보는 디자인DB(<http://designdb.com/>)에서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 문 의 -

(재)한국컬러앤드패션트렌드센터 전략기획팀
서울시 서초구 사임당로5, 남도빌딩 5층
T. 02)549-2362 F. 02)549-4745 H. www.cft.or.kr

(CFT) (재)한국컬러&패션트렌드센터